光州日報

제1747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6월 16일 (음력 5월 21일) 금요일

"5·18은 세계 평화·인권의 상징"

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 개막…DJ·고르바초프 등 120명 참석

5·18 광주정신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세계 평화를 확산시키는 세계 정신으로 거듭난다.

세계 평화의 수호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가 15일 오후 6시 담양관광호텔에서 열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 3면〉

환영리셉션에 이어 행사 둘째 날인 16일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와 핸드프린팅, 개회식 등이 열린다. 이날 오후에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리며, 행사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대학생간 토론회에 이어 이번 행사를 총 결산하는 '광주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리셉션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을 비롯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5명과 국제앰네스티 등 노벨평화상 수상단체 대표 및 국내외 저명 인권·평화운동가 등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최한 이날 환영리셉션은 박광태 광주시장의 환영사와 김 전 대통령의 만찬사,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답사, 건배제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했던 광주가 이제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토대로 세계 평화와 인권신장,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메카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상회의 공동의장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환영만찬사에서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한 광주의거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여러분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인 만큼 이번 회의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이번 회의는 평화를 위해 걱정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 주최로 15일 오후 담양관광호텔에서 열린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환영리셉션에서 고르바초프 옛 소련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쉘 마그넥 분데빅 노르웨이 전 총리(왼쪽부터)가 건배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북 힘 합쳐 조국통일"

6·15통일축전 이틀째…공동호소문 채택
남북 당국 대표 접촉 DJ 방북 조율한 듯

'6·15민족통일대축전' 이틀째인 15일 남·북·해외 대표단은 ▲호소문 채택 ▲ 당국대표간 좌담회 등을 통해 '조국통일의 전기를 마련하자'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6·7·9면〉

남측 당국 대표단장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남북당국 대표단 공동행사에서 "핵문제와 같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현재의 지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측 당국 대표단장인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장은 "당국이 시대착오적인 체제 대결, 이념 대결의 마지막 장벽을 허물지 않는 한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이 순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상대방의 사상과 이념, 제도를 인정·존중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지체없이 취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 당국 대표단은 이어 우리 측 13명과 북측 1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좌담회를 갖고 40분 동안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좌담회가 끝난 뒤 양창석 통일부 공보관은 "미사일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을 주제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6·15축전에 대해 서로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북·해외 대표단은 오전 10시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민족통일대회를 열고 공동호소문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 이룩하자 ▲민족자주로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거족적인 평화운동으로 민족의 안녕을 지키자 ▲민족의 대단합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고 입을 모았다. 민간 대표단은 이날 오후 학술·여성· 종교· 교육 등 8개 부문별로 상봉모임을 가졌다.

/6·15민족통일대축전 공동 취재단

World Cup 프랑스전 전략

▶관련기사 4·5·8·20·22·23면

비도 온다는데…
'佛' 반드시 끈다

천둥·번개 동반 수중전 예고
아드보 마법 '비김'서 '승리'로

첫 승을 올린 아드보카트호가 오는 19일 오전 4시(이하 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 젠트랄 슈타디온에서 열리는 독일 월드컵 본선 G조 조별리그 '아트사커' 프랑스와의 2차전 전략을 '비김'에서 '승리'로 전격 수정했다.

한국과 프랑스전은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하는 궂은 날씨가 예상돼 수중전이 큰 변수로 떠올랐다.

아드보카트호의 핌 베어벡 수석코치는 14일 오후 "프랑스를 이기면 마지막 스위스전은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해 프랑스전의 목표가 승리에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은 토고전이 끝난 뒤 프랑스와의 결전에 대한 목표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아드보카트호 코칭스태프 내부에서는 프랑스전의 전략적 목표를 무승부에서 승리로 바꾼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아드보카트호가 프랑스전에 사활을 건 것은 앞서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프랑스-스위스의 1차전에서 두 팀이 득점없이 비겼기 때문이다.

한국이 프랑스와 비기고, 스위스가 토고를 꺾어 양팀이 1승1무가 될 경우 골 득실과 다득점에 따라서는 스위스와의 최종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토고와의 1차전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며 원정 첫승을 챙긴 태극전사들은 욱일승천의 기세로 '레블뢰 군단' 프랑스를 16강행의 제물로 삼을 계획이다.

프랑스전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중전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중전이 한국과 프랑스 어느 쪽에 유리할 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태극전사들은 파주 훈련과 스코틀랜드 전지훈련을 통해 빠르고 질퍽한 잔디 적응방법을 연마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프랑스도 축축한 잔디에서 빠른 패스가 더욱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늘밤의 월드컵

<16일>

아르헨티나	C	세르비아	겔젠키르헨/22:00/KBS1·MBC·KBC

<17일>

네덜란드	C	코트디부아르	슈투트가르트/01:00/KBS2·MBC·KBC
멕시코	D	앙골라	하노버/04:00/KBS2·MBC·KBC

스코어 보드

스페인	(1승) 4	H	0 (1패)	우크라이나
튀지니	(1무) 2	H	2 (1무)	사우디
독일	(2승) 1	A	0 (2패)	폴란드